

2015. 04. 18. 국가직 9급 국어 총평과 해설

남부고시학원 정채영

2015년 국가직 9급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문법 5문제, 어문 규정 3문제, 어휘 2문제, 비문학 독해 7문제, 문학 독해 3문제로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출제되었다.

문법 영역은 형태론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각각 용언의 활용,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별, 조사의 적절한 쓰임 등이다. 의미론에서도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휘의 문맥적 의미와 이를 활용한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어문규정에서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한글 맞춤법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고, 개정된 문장부호와 추가된 표준어에 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 영역에서는 한자성어의 적용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으며, 매년 출제되었던 순우리말과 속담은 출제되지 않았다.

비문학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일치하는 정보의 확인 2문제와 글의 논리적 전개 2문제 그리고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독자의 반응 이해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문학 영역에서 출제된 3문제는 현대시, 고시조, 고대 수필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였고, 소설과 수필은 출제되지 않았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확히 잡는 일이다.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③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그렇게 좋던?”은 바르게 쓰였다.

- ① 이 문장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이므로 ‘-대’를 써서 ‘간대요?’와 같이 써야 한다.
- ②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쓴다. ‘잘하데’로 고쳐야 한다.
- ④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므로 ‘크대요’가 바르다.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③

③ ‘대로’가 체언 뒤에 붙어서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인 경우는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띄어 써야 한다. ‘내키는’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뒤에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바르다.

- ① ‘도외시하다’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는 뜻으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② ‘밖’은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조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1 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의 항에 근거하여 앞말에 붙여 쓴다. ‘대리전으로밖에는’으로 붙여 써야 바르다.
- ④ ‘지’, ‘-르지’, ‘-니지’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에만 띄어 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쓴다. ‘회복될지’는 시간의 경과가 아니므로 붙여 쓴다.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②

‘한하다’는 동사로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의 뜻을 지니며 조사 ‘에’와 호응하여 ‘...에 한하다’의 형식으로 쓰인다.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로 써야 바르다.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②

‘본말전도(本末顛倒)’는 일의 근본(根本) 줄기는 잊고 사소(些少)한 부분(部分)에만 사로잡힌다는 뜻이다. 제시문에서는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경계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본말전도(本末顛倒)’이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실제의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은 이름만 있고 실상(實相)은 없다는 뜻이다.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를 나타내는 불교 용어이다.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ㄹ - ㄷ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③

ㄷ은 화제제시로 인간의 신체 조건과 태양의 관계를 들었고, (ㄹ)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빛을 이용하게 되는 전개로 이어진다. (ㄱ) 그 결과로 문명의 발달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ㄴ) 긍정적 효과만이 아닌 생체 리듬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생겼다.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③

빗대어 설명하기는 유추의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리더십’은 길잡이로 비유할 수 있고, ‘부재’는 혼자 가 버리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며 ‘잘못된 정책’은 방향을 잘못 가리키는 것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쟁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잣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① 사물놀이의 가치
- ② 사물놀이의 소리
-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①

사물놀이의 가치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사물놀이의 소리는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에 나타나 있다.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는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에 나타나 있다.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는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에 나타나 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답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 ③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③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가 직접 발화이므로 직접 발화가 간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①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에 나타나 있다.

②는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에 나타나 있다.

④는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에 나타나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쫓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게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비교인데, 이 글은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토대로 ② 소유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말을 빌린 것에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④ 말을 빌린 일상사와 관련지어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기

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④

제시문은 이론이 참되지 않으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도 참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④도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을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치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치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치박한 자전거를 보았어.

①

‘쳐주마’는 ‘셈을 맞추어 주다.’는 뜻으로 ‘쳐주마’로 써야 바르다.

② 치지다: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

③ 치대다: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④ 치박하다: ‘치박다(마구 쭈서 넣거나 폭 밀어 넣다.)’의 피동사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④

‘젊어 보인다’는 ‘젊다’와 ‘보이다’로 문장을 분리할 수 있으며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된 상

태의 문장이다.

- ① 밝다(본용언) 오다(보조용언)
- ② 먹다(본용언) 버리다(보조용언)
- ③ 부치다(본용언) 주다(보조용언)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결론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②

사고와 비판은 문맥적으로 하의 관계에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에 속하는 어휘군이다.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盼)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끝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④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에서는 “성공한 것”이라고 하였기에 적절치 않다.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째눈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얼른 결정(決定)을 짓지 못함을 비유함.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2.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 만하다고 말함이란 뜻으로, 곧,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함을 이룸.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삼동(三冬)에 ㉠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췌 적이 없건마는
㉢ 서산에 해 지다 하니 ㉣ 눈물겨워 하노라.

①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②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㉔: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④ ㉔: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②

눈비를 맞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화자의 처지가 가난함을 말하는 것으로,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② 면도칼, 서릿발, 쉼등이, 장난기
 ③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은 모두 합성어이다.

‘고추장’은 쌀·보리 따위로 질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 또는 되게 쏘 죽에, 메줏가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섞어서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이다. ‘장’은 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명사이다.

‘놀이터’는 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을 뜻한다. ‘터’는 자리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손짓’은 손을 놀려 어떤 사물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일로 ‘짓’은 몸을 놀려 움직이는 동작 명사이다.

‘장군감’은 장군이 될 만한 인재라는 뜻이다. ‘감’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② 면도칼 (합성어) 서릿발 (합성어) 쉼등이 (파생어) 장난기 (파생어)
 ③ 깍두기 (단일어) 선생님 (파생어) 작은형 (파생어) 핫바지 (파생어)
 ④ 김치찌개 (합성어) 돌다리 (합성어) 시나브로 (단일어) 암탉 (파생어)

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①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의미한다.

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 %, 중복 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	59.	46.	13.	12.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	83.	56.	16.	10.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④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글을 써서 자료를 활용할 때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기능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인터넷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적절한 자료 활용이 아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④
이 시에서 화자는 잠을 깨는 행위를 통해 너를 남기고 온 곳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게 된다. 잠은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은 아니다.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 ‘성공 : 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 : 장난감 블록’
- ③ 로맹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맹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 : 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 옷차림’

④
‘액자의 힘’은 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액자를 썼느냐에 따라 그림을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옷차림도 호감도에 영향을 주므로 ‘그림 : 액자’의 관계와 가장 유사하다.